

10월28일 조권웅



- ▶ 2004. 10. 배포
- ▶ 총 3 쪽 (사진없음)

보 도 자 료

- ▶ 산업안전과장 문 기 섭
담당사무관 권 재 록
- TEL : 02-504-2052
- E-MAIL : jlkwon12@hanmail.net
- FAX : 503-4545

제목 : 「CLEAN 사업장」 10,000호 탄생

- 프레스작업장에 소음성 난청 등 재해위험 제거 -

- ◆ 노동부가 5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'01.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「CLEAN 사업장」 10,000호가 탄생했다.
- ◆ 노동부는 프레스에 방음설비를 완비하고 연삭기 등 위험 기계에 방호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·보건설비에 총 13,261여만원(보조금 2,000만원, 자체자금 11,261만원)을 투자하여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진정밀 (대표 李相梧)을 「CLEAN 10,000호 사업장」으로 인정키로 하고 '04. 10. 28(목)일 인정서를 수여할 계획이다

□ 이번에 10,000번째로 「CLEAN 사업장」으로 인정받은 성진정밀은 「CLEAN 사업장」으로 만들기 이전에는 매우 시끄러운 작업환경에서 프레스 철판을 가공하는 전형적인 3D업종이었으나, 「CLEAN 사업장」으로 만들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.

- 우선 조명이 환해지고 바닥이 깨끗해지자 정리정돈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달라졌고

- 무엇보다도 모든 프레스(17대)에 흡음재질의 방음부스를 설치함으로써 소음이 103데시벨(나이트클럽 수준)에서 80데시벨(버스 정류장 정도) 정도로 획기적으로 감소하면서, 근로자들이 소음성 난청 등 직업병에 대한 걱정없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다

□ 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「CLEAN 사업장」의 경우 근로자의 96%가 만족하고, 투자비용보다 편익이 약4.1~5.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으며

- 노동부가 「CLEAN 사업장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재해가 약 32% 감소하였고, '04.7월까지 1,456개 사업장에서 2,538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밝혔다

□ 『CLEAN사업』은 소규모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

- '01.10월부터 '04.8월까지 총 8,862개 사업장을 『CLEAN 사업장』으로 인정하였고

- '04년의 경우 연말까지 총7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약 7,000개소를 지원하고, '05년에는 약1,000억원을 투자하여 10,00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

□ 김대환(金大煥) 노동부장관은 이날 수여식에 참석하여 “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하여야 할 과제중의 하나가 기술인력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”이라고 말하면서

- 정부는 앞으로도 「CLEAN 사업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세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